

팜유, 바이오디젤 판정 “공방”

Gapki, 인도네시아 정부에 WTO 제소 촉구 ... EPA도 제외

인도네시아 팜유업계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촉구했다.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는 6월7일 인도네시아 팜유생산자협회(Gapki)가 팜유로 만든 바이오연료를 친환경 연료에서 제외한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은 불공정 무역 관행의 하나라며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EU 27개 회원국은 2008년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D에 합의하면서 팜유로 만든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했다.

세계 최대의 팜유(CPO)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팜유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이오연료 생산용으로 EU에 수출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현재 인도네시아 팜유를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지역으로, 2012년 1/4분기 수입량도 156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59.7%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는 EU의 지침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2011년 12월 팜 디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는 17%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팜 디젤을 EPA의 친환경연료에서 제외할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07>